

# 강한 경제 전주 위한 시민 목소리 청취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 우범기 시장 35개 동 순방서 주차·청소·도로 개선 등 200여건 건의사항 접수... 순차적 해결기로

전주시민들은 우범기호 전주시정에 주차 문제 개선과 청소, 인도·도로 정비, 가로등 도로 개선 등 생활 불편 해소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우범기 시장이 35개 동을 찾아 시장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동 순방 과정에서 200여 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번 동 순방을 통해 민선8기 시정목표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의 의미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했다. 그 결과 35개 동 주민들은 △도시계

획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주차 문제 △동 주민센터 신축 △청소 및 가로수 관리, 인도·도로 정비 △가로등 조도 개선, 하천 정비 등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결해줄 것을 우 시장에게 건의했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우 시장은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응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응적률과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청소와 가로수, 인도·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현장을 살펴 즉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또, 주차문제 등은 수도관에서 성공한 사례를 들어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 장기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들이 야간에 어두워서 느끼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 조도개선 등을 위해 현재 LED 등으로 전부 교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이번 동 순방

과정에서 35개 동별로 특색있는 음식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맛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동별 대표 음식 찾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행정과 주민과의 접점인 동 주민센터에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질의해 주신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강한 경제 전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합동점검단 편성 25일까지 실시

전주시가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밀과 보리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청소·산림부서가 합동으로 2개반 6명의 합동점검단을 편성,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일부 농민들의 경우 영농부산물의 수집과 배출이 불편하다는 등을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해 오고 있으며,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경작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불법소각 민간 감시원도 채용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를 틈타 소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은 이모작 재배 지인 조촌동과 여의동, 송천동, 효성동 일대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및 토지환원 원관쟁기 지원사업, 영농부산물(밀,보리대 등) 토양환원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불법소각에 대한 농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소각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40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또,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며, 농민공익수당과 영농부산물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도 제외될 수 있다. 강세권 전주시 농축산정책과 과장은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영농부산물 소각이 미세먼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동학농민혁명 129주년 국제포럼 '혁명의 미술'

### '제3회 전주동학농민혁명기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전주시 열려

동학농민혁명 129주년을 기념해 세계 근대혁명을 소재로 한 국제포럼이 전주에서 열렸다. 동학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혁명 미술을 매개로 소개했다.

전주시와 전주국제혁명예술포럼조직위원회는 지난 2일 전북대학교 건지아트홀에서 '제3회 전주동학농민혁명기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21년 '혁명문화와 영화'로 시작된 전주동학농민혁명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은 지난해 '혁명의 노래'에 이어, 올해는 '혁명의 미술'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농민화가이자 동학농민혁명 연작화가를 일생에 걸쳐 그리고 있는 박흥규 화백이 '그림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맡았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미술사가인 토마스 뮐러(Thomas T. Muller) 독일 마틴루터박물관장과 안소니 쉘튼(Anthony Alan Shelton)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교수, 영국의 미술평론가인 디기 워드 알담(Digby Ward-Aldam) 등이 참가했다.

이들 3인의 해외 연사가 각각 '망치, 칼, 무지개, 예술 속 농민 붓기의 상징'과 '예술, 혁명과 시간의



전주시와 전주국제혁명예술포럼조직위원회는 지난 2일 전북대학교 건지아트홀에서 '제3회 전주동학농민혁명기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종말, 멕시코, 1847-1960', '진압 경찰도 사람이다: 1968년 5월이 준 교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가운데 독일농민전쟁의 미술에 대해 발표를 맡은 토마스 뮐러 박사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독일농민전쟁의 발상지이자 토마스 뮐러의 주 근거지였던 뮐하우젠의 박물관장으로 일했다. 토마스 뮐러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독일농민전쟁으로 연결되었고, 그 역시 전통과 비슷한 운명의 길로 갔지만 그의 혁명은 유럽 종교개혁의 씨앗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제포럼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됐으며, 국제포럼이 끝난 이후에

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국내 작가 50여 명이 참여한 '혁명, 그리고 혁명 그 너머의 것들'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의 개막식도 진행했다. 이번 특별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며, 전시기간 작가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 전세계 혁명·저항운동을 '혁명의 미술'이라는 주제로 알아본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혁명과 미술운동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서학예술마포도서관, 한국 전통 미술 감상 강의 프로그램 가져

전주시는 지난 3일 서학예술마포도서관에서 장지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한국 전통 미술 문화를 이해하는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장 교수는 '한국 화하고 동양화는 어떻게 다른가'를 주제로 한국화 기초와 한국화 관련 미술 용어, 우리 미술의 역사, 한국의 미(美)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장지성 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는 전북 진경(전주 F갤러리)의 7회 개인전을 열었고,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화해영모화(2020년) △전통 미술의 감상과 교육(공저, 2020년) △우리 그림 배우기(2005년) 등이 있다.

서학예술마포도서관은 이날 첫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산수화와 풍경화는 어떻게 다른가 △전통 미술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봐야 하는가 등 전통 미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감상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 전통 미술 문화의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통 미술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워볼수록 우리 전통 예술 문화에 대해 바르게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예술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전주지역 청소년들,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전개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제28회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1회용품 없는 전주 만들기'에 동참했다. 시는 지난 1일 전북혁신도시 염순근 린공원과 기지제수변공원 일원에서 전주 온빛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170여 명과 함께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절약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인 환경정보와 활동도 펼쳤다.

또한 공기현 롯데리아 전주법원점 대표와 강민준 기지제상가연합회 회장은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 햄버거와 음료 200개를 후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캠페인에는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들도 참여해 시민들과 캠페인에 동참한 청소년들에게 1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과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중

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1회용품 없는 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버스 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이미지 송출과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이번 캠페인이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자, 시민들께서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자원 순환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회용품 없는 날'은 지난해 3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민간 영역까지 확대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자원순환 실천 운동으로, 시는 매월 10일(1=일회용품, 0=Zero) 전주 곳곳을 찾아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